

발행호: 40호

발행일: 2018.04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임두빈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1. Focus

[005] 2018년 라틴아메리카 대선 전망 및 의미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 2. Issues

[013] 2.1. 한국과 중남미의 FTA, 어디까지 와 있나?  
허태완 (외교부 중남미국)

[021] 2.2.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과 페루의 부패 구조: 이중적-중첩적 부패 구조의 노출과 시사점  
김유경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 3. People

[033] 위대한 브라질의 꿈을 실현시킨 정치인 주셀리누 쿠비체크  
정재민 (루소폰문화연구소)

## 4. Country Report

[041] 7월 1일 멕시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까?  
안태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 5. Diary

[051] 멕시코의 두 얼굴,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에 선 나 - 사립대 장학생의 일기  
미겔 앙헬 아리스멘디 트루히요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교 심리학과)

## 6. Interview

[063] 중남미연구의 발자취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 7. Travel

[083] 멕시코 문화를 비추는 거울의 도시, 멕시코시티의 역사 지구 (Centro Histórico)  
후안 라몬 이슬라스 우에스카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교)

## 8. Academy

[101]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는

## 9. IILAS

[107] 간추린소식





## 2018년 라틴아메리카 대선 전망 및 의미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중남미는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주요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 ‘선거 수퍼 싸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대선레이스를 끝냈거나 진행중이고 쿠바도 권력이양을 앞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지역의 트렌드였던 중도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우파가 득세하는 추세이지만, 멕시코에는 좌파의 집권 가능성도 있어 지역 전체의 이데올로기 지형 변화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와 같은 선거 정국. 혹은 주요국의 정치화 바람은 여러 국가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고 (Brazil, Chile, Mexico의 신용등급 하강 경험), 포퓰리즘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제침체와 대통령 탄핵, 부패 스캔들 등 혼란 속에 치러지는 2018년 브라질 대선이 역대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선거가 되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31%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갈길은 험난하다. 룰라가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자청 타청으로 대체 후보가 논의되고 있다. 극우 성향의 기독교사회당(PSC)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이 15%로 지지율 상승중이고, 지속가능네트워크의 마리나 시우바 전 연방상원의원도 10%를 기록하는 등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룰라 몰락은 곧 우파의 득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우소나루는 최근 들어 극우 성향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행보가 재계와 금융계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리는 싫지만 군부독재는 그립다”며 과거에 대한 향수를 서슴없이 자극한다.

멕시코에선 2018년 7월 예정된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좌파 모레나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64)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그는 부패 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력 마피아 청산, 노인연금 확대, 공무원 임금 삭감,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충 등을 내걸며 멕시코의 변화를 외치고 있다. 특히 부패한 현 니에토 정권에 대한 멕시코 국민의 실망감까지 더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오브라도르의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했으나, 올 4월에 43.7%를 기록하여 판세를 굳혀가고 있다. 하나의 변수는 보수층이 집결하여 단일화를 이루어내거나, 오브라도르에 대한 ‘급진 좌파 포퓰리스트 프레임’ (일명 우고 차베스 프레임)이 성공할 경우 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 대선은 유세 과열과 함께 여권의 관권 선거 개입, 대표 행위 등의 변수도 있다.

좌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오브라도르가 당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 이민, 장벽 건설 등의 이슈에서

트럼프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여 진지한 대미 협상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선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모여, 재정건전성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소 방만한 면이 있는 공공부문 연금제도 등 사회정책에 대한 개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칠레에선 전 대통령이었던 세바스찬 피네라가 작년말 선거에서 승리하여 우파가 재집권하였다. 2015년 아르헨티나 마끄리(Macri) 대통령 선출이후 중남미 정치권의 우경화 트렌드가 시작되는 듯하다. 피네라의 공약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사회간접자본·보건 시설 투자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혁, 연금 개편 등 친시장적이었다.

최근 타 중남미 정국이 불안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칠레에 주변국 이주민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칠레 거주 외국인인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30만 명이 불법체류자이고, 외국인



대부분은 아이타나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칠레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개방적 이민정책을 시행했으나, 보수 성향의 피네라가 집권하여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러모로 정국이 어수선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월 10일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대선 날짜를 8개월이나 앞당겼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의 문제점은 치안과 경제난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베네수엘라가 1천500억 달러의 외채 중 일부분을 되갚지 못하는 선택적 디폴트 위기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동시에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하다. 하루에도 800명씩 난민이 주변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병’으로 불리는 결핵까지 유행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18년 5월에 예정된 콜롬비아 대선에서는 4월 여론

조사 현재 우파 민주중도당 후보인 이반 두케 전 상원의원이 36%로 1위를 달리고 있고, M-19반군 출신인 좌파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 전 보고타 시장은 22%로 2위를, 중도 성향의 세르히오 파하르도 전 메데인 시장은 17%로 3위를 기록했다.

2016년 12월 평화협정 이후 콜롬비아의 무장혁명군(FARC)은 6월 보유한 무기 중 방범용 일부 무기를 제외한 7천여 점을 유엔에 반납해 사실상 무장해제를 마쳤으며, 7천여 명의 대원은 비무장지대에 머물며 사회복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FARC도 2017년 8월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이라는 새 이름을 정하고 정당으로 거듭났다. 다른 한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FARC에서 이탈한 잔당 규모가 700~1천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과비아레, 과이니아, 비차다, 나리뇨 등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서 마약밀매와 불법 광산 운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7-2018 선거 슈퍼 사이클을 맞이한

중남미 정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남미의 선거 수퍼 싸이클에선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에서 우파가 우세를 보여 지역 전반의 우경화 추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권 교체가 부패와 불평등이라는 뿌리깊은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진 못할 것이다.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통해 개혁을 약속하지만, 어느 국가이던 정치경제의 근본적 구조적 변혁을 이루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중남미 정치권은 개혁에 대한 압력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오데브레시 스캔들의 여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패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셋째, 동시에 심상치 않은 소비자 물가, 높은 범죄율 및 치안불안에 따른 경제 사회 불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에선 말라리아가, 브라질에선 황열병이 다시 돌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들은 사회정책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서민생활 위축 등으로 인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중남미 경제는 여전히 외부적 위기로부터 취약하다. 미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면 멕시코-중미-카리브 지역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1차 산물 가격이 치솟지 않는 한 남미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과 중남미의 FTA, 어디까지 와 있나?

허태완 (외교부 중남미국)

현재 한국은 중국,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며 세계 57개국과 FTA를 맺은 FTA 강국이다. FTA라는 이름이 낫설었던 2002년, WTO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몽골과 한국, 단 두 나라뿐이었고 그 때 한국은 멀리 떨어져있는 칠레를 첫 번째 FTA 파트너로 선택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었고 2011년 페루, 2016년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등 중남미에서 경제 외교가 펼쳐졌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Southern Common Market),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열어져갔다. 하지만 올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은 다소 편향된 경제 협력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북미, 태평양 지역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에 더해 북미와 남미의 교두보인 중미와 FTA를 체결했고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 대서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연합인 남미공동시장, 지정학적 전략성을 갖는 태평양동맹 회원국(PA: Pacific Alliance), 그 중 특히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강화 노력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FTA 판을 짜고 있다.

이렇듯 우리 정부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중남미와 경제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의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에서 기인한다. 첫째, 중남미는 한국의 무역 흑자 지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이다. 전 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도 대중남미 무역에서 연간 100억불 이상의 흑자가 창출되었으며 중산층 확대로 무역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중남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투자 확대, 시장개방정책  
기조 유지 등이 나타나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수출이  
강화될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둘째, 중남미와 신산업 분야의 상생협력을 통해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 중남미는 서비스업,  
농업, 광업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경험을  
공유하고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며 동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중남미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의  
공급처가 된다. 특히 리튬, 구리 철광석은 전세계  
부존량의 각각 44%, 42%, 14%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존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자원 공급을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적인 한국에게  
중남미 지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은 중남미와의 경제 외교를  
강화해왔고 이것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  
외교의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먼저,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이 개시된 후 올해 2월에 정식 서명되었고 이를 통해 한-중미 간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중미 국가들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한국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중미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과 중미 국가 간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갖추고 있기에 FTA를 통해 교역 확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미는 북미와 근접해있는 동시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마주해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은 동 FTA를 통해 중미를 세계 시장 진출의 생산기지 및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중미 FTA 외에도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발효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 예컨대 한-칠레의 교역량은 FTA 발효 전 2003년에 비해 2013년에 4.5배 증가했으며 건설, 에너지 분야의 칠레시장 선점 효과는 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칠레 차카오 대교 (Puente Chacao) 건설 수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FTA는 자원 FTA 성격이 강하여 자원 수입에 덕을 보았고 자동차, TV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중·일은 물론 미국과의 FTA, 남미공동시장, 멕시코, 쿠바와 경제보완협정(FTA보다 낮은 수준의 양자협정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을 맺고 있는 페루의 경제 네트워크 활용도 한-페루 FTA의 중요한 의미다.

한국의 중남미 FTA를 견인하는 3국은 모두 태평양동맹 가입국이며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 한-태평양동맹 관계 증진에도 매우 중요하다. 태평양동맹은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로 구성된 경제 협력체이며 한국은 태평양동맹에 2013년부터 옵저버로 참여해왔고 현재는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는 태평양동맹 회원국 고위급 인사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 회원국과의 FTA 체결 및 보완의 효과를 가진다. 즉, 준회원국

가입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한-멕시코 FTA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페루, 칠레, 콜롬비아와 기체결한 FTA를 보완하여 특혜관세 스케줄,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 EU, 일본과 FTA를 체결한 국가인 동시에 태평양동맹 수출 중 비중이 75%일 정도로 한-태평양동맹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준회원국 가입을 통한 한-멕시코 경제 교류 증대의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 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바, 준회원국 가입은 대중남미 투자 활성화 및 남미공동시장과의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지역 경제 연합으로, 남미지역 인구의 62%인 2.6억 명과 GDP 69%인 2.4조 달러를 차지하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기존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불안정한 국내 정치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친화적인 신정부 출범에 따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폐쇄적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EU, 캐나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는 2017년 3월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에겐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진행하는 무역협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남미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측면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또한 에콰도르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동 협정을 통해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에콰도르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지속적인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미 3대 석유 부존국가이자 설비, 건설 개발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로 평가된다. 비록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교역규모는 6.7억 달러('17년 10월 기준)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양측의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토대로

무역협정 체결시 양국 간 교역과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는 남미공동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GDP의 70%가 외국과의 무역에서 창출되는 한국에게 지속적인 FTA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중남미 경제규모의 90%를 차지하는 소위 ‘빅7’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는 중남미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력 증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과 페루의 부패 구조:  
이중적-중첩적 부패 구조의 노출과 시사점

김유경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과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

2016년 페루 대통령으로 당선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의 중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는 강경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쿠친스키는 대규모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어 두 번의 탄핵 위기를 맞았으며 결국 2018년 3월 21일 의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

2017년 12월, 쿠친스키 대통령은 그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 웨스트필드 캐피털이 브라질의 오데브레시 컨소시엄으로부터 78만 2천 달러(약 8억 5천 만 원)에

이르는 자문 수수료를 받는 등,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0만 달러(54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자신이 웨스트필드 캐피털에서 경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면서 야권의 탄핵 표결 추진을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퇴임을 거부했다.

중남미 전체를 뒤흔든 브라질의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는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여러 중남미 국가의 고위 권력층에 뇌물을 공여해 왔으며 이 기간에 쿠친스키 대통령은 페루의 재무장관을 지냈고 오데브레시는 주요 고속도로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 일각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켄지 의원과 후지모리의 사면 뒷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첫 번째 탄핵 추진은 전체 130석 중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87표 찬성에 못 미치면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쿠친스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사흘 뒤인 크리스마스 전날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이로써 탄핵을 둘러싼 뒷거래가 사실이었다는 의혹 또한 가중되었다. 또한 오데브레시 사가 페루를 포함해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시인함에 따라 쿠친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결국 페루 의회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오데브레시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2017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인 2018년 3월에 재적 의원 130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2017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쿠친스키 대통령은 이에 반발했으나 탄핵 전날 밤에 비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자 의회에 사임을 제안했다.<sup>1)</sup>

---

1) 페루의 제1 야당(Fuerza Popular)에 의해 공개된 이 동영상은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의원들에게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한 정부 사업으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장면도 포함되었다. 정부 각료들은 정치적 지원을 대가로 한 계약을 부인했고 해당 관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쿠친스키 이전에 재임한 톨레도(Alejandro Toledo), 가르시아(Alan Garcia)와 우말라(Ollanta Humala) 전 대통령들도 유사한 뇌물 스캔들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2016년 7월에 퇴임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2011년 대선 운동자금으로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자금 세탁의 의혹을 받은 부인과 함께 기소되어 수감되었다. 그의 전임자인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리마의 지하철 공사를 포함해 다수의 오데브레시 뇌물 수수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 후지모리 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집권했던 톨레도 전 대통령은 브라질과 페루를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 계약을 오데브레시 사에게 주는 대가로 2천만 달러(약 2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현재 도피중이어서 페루 사법부가 현상금까지 걸고 수배중이다.

이들 전임 대통령 모두 선거와 집권 초기에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을 강조하며 지지도를 높였던 바 있다.



이들의 부패 스캔들은 최고 권력자 개인의 일탈적 부패 행위가 우연히 겹쳐 폭로된 것일까 아니면 원인과 유형에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인 것일까? 페루에서 일정한 유형의 부패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는 페루 부패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부패의 이중 구조-일상적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페루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제한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취약한 제도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소위 ‘코이마(co-ima)’로 불리는 어느 정도의 뇌물은 급행료로 인식되는 국가이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뒷돈이나 뇌물, 선물의 경계가 모호한 부패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당연하게 행해지고 이것이 부패 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형태의 ‘일상적 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AmericasBarometer 2016/17 지역보고서』<sup>2)</sup>

2) AmericasBarometer, LAPOP, 2016/17, Regional Report: The Political Culture of

에 따르면, 중남미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다고 느끼는 인식과 연관이 있는 질문 즉, 설문 직전 12개월 동안 경찰 또는 관료 등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남미 21개국에서 평균적으로 5명 중 1명은 뇌물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실제로 준 경험이 있다(Corruption Victimization)고 응답했다. 중남미 평균 약 20%에 달하는 Corruption Victimization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 국가 중에서 페루(29.6%)는 볼리비아, 아이티, 파라과이, 멕시코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다고 여겨지는 순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후지모리-몬테시노스 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페루의 부패가 소소하고 일상적인 유형의 부패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거대한 부패 유형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쿠친스키 대통령의 탄핵 및 사임 과정을 통해 공적 영역의 가장 정점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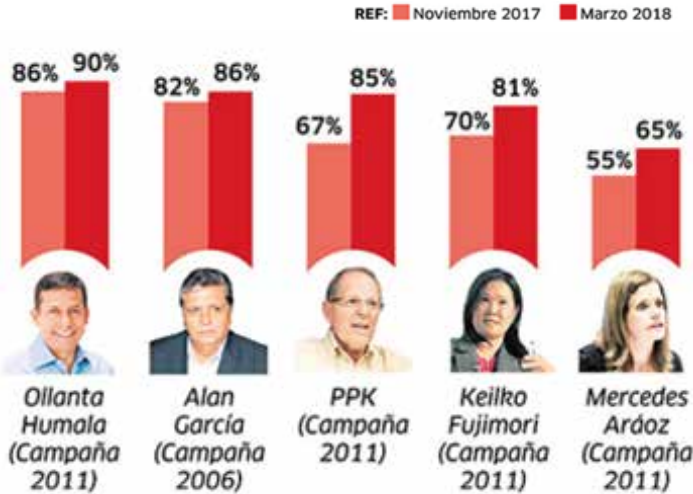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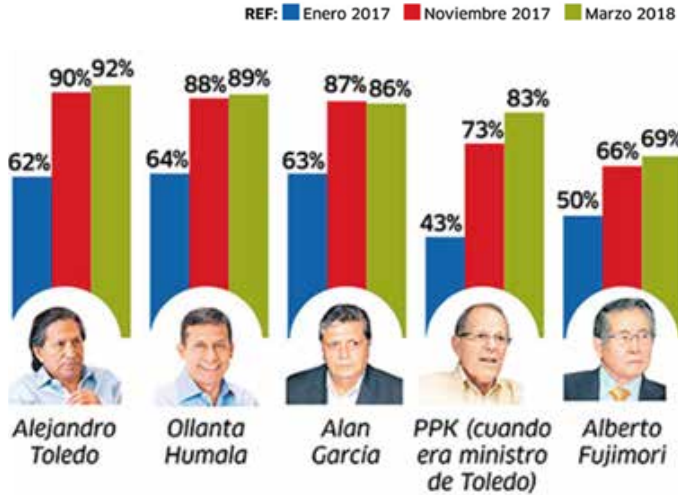
Democracy in the Americas, 2016/17: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cy and Governance.

있는 권력자 스스로, 또한 그의 비호 아래 대리인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여러 영역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정치인-공직자-기업인뿐만 아니라 미디어까지 대규모의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부패 행위의 실행 및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톨레도나 우말라, 쿠친스키 등이 대선의 중요한 공약으로 항상 부패척결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빈곤, 마약 등의 문제보다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부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 페루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절반 이상 또는 모든 정치인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페루의 경우 응답자의 7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는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아래 표는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기간 동안 뇌물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떠나 그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오데브레시 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치활동

기간에 오데브레시 사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출처: <La República, 25 Mar 2018>, 검색일 2018.4.9  
<http://larepublica.pe/politica/1216696-gran-mayoria-cree-que-odebrecht-pago-coimas-a-cinco-ex-presidentes>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과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은 개별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와 구조적 부패가 중첩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이중적 부패 구조가 형성되고 점차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소소하지만 불법적인 일탈행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점차 구조화되고 비공식적이지만 제도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더하여 페루의 경우 개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나 비효율적인 정부 행정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 금융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성장을 통한 분배,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배타성 등은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부패의 요인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 공직의 권력자와 기업, 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증폭될 때 부패의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체계화된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지도층의 부정부패 행위는 공적 영역의 작동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 또한 전체적인 부패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sup>3)</sup>

그리고 이러한 부패 구조가 지속될 때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든 부패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 전, 현직 대통령들의 부패 스캔들을 통한 시사점

페루의 전, 현직 대통령들과 연관된 오데브레시 부패 스캔들과 탄핵의 위기까지 가게 된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임은 페루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실제로 일상적 부패와 권력층의 제도화된 부패가 서로를 강화시키며 현실적으로도 부패를 심화시킨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결국 페루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점차 중첩되어 서로를 악화시키는 이중적 부패 구조를 단절하고 일상적 부패를 정당화하는 보다 거대하고 공적인 ‘제도화’된 부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

3) Democracy in the Americas, 2016/17: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cy and Governance. 김유경. 2017. “페루의 이중적 부패 구조와 반부패정책의 한계”, 『글로벌 정치연구』 제10권 2호. p. 123.

다행이도 사회적으로 부패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Corruption Tolerance의 수준에 있어 페루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거나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이 20.5%로 중남미 국가들 평균치보다 낮고 21개의 중남미 국가들 중에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sup>4)</sup>

즉,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로 나타나는 부패의 수준은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높지만 시민사회에서의 부패 척결의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에서 부패를 당연시하는 Corruption Tolerance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페루의 사례는 다소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 사실상 부패를 척결해야 할 주요 행위자들이 가장 부패했다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페루에서 보여 지는 시민사회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는 공적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

4) AmericasBarometer, LAPOP, 2016/17, Regional Report: The Political Culture of Democracy in the Americas, 2016/17: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cy and Governance.





## 위대한 브라질의 꿈을 실현시킨 정치인 주셀리누 쿠비체크

정재민 (루소폰문화연구소)

### 1.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브라질 현대사는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어느 학자는 말한다.

주셀리누 쿠비체크는 1902년 9월 12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 지아만치나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주영 세자르는 사촌에게 쓴 편지에서 "미래의 브라질 대통령이 태어났다"고 득남의 큰 기쁨을 표현했다. 하지만 주영 세자르는 아들이 자랑스럽게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셀리누가 2살 때인 33세에 요절한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여유롭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던 주셀리누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 줄리아 쿠비체크의 교육열과 정성어린 보살핌에 힘입어 우수한 성적으로 가톨릭신학교에 진학한다. 그런데



주셀리누는 성직자가 아닌 의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학비가 비싼 의대에 입학한다는 건 넉넉치 못한 집안 형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위의 만류와 녹록치 못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에 옮긴다.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미나스제라이스 의과대학에 합격한다. 의대 입학 후에도 비싼 원서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학교와 일자리를 오가는 생활을 계속했던 주셀리누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 한 학기를 휴학하고 요양을 한 적도 있다.

그림. 1932년 야전 군의관 시절 주셀리누 쿠비체크(사진 맨 왼쪽)  
(자료: <http://www.projetomemoria.art.br/JK/biografia>)

의대를 졸업한 뒤, 주셀리누는 직업 의사 생활을 시작한다. 1930년대 초 브라질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안갯속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다. 1932년 혁명으로 미나스제라이스 주와 상파울루 주가 수개월 동안 무력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의관으로서 차출된 주셀리누는 당시 유력 정치인들을 알게되었고 이를 계기로 혁명이 끝난 뒤 주정부 행정직을 잠시 맡게 된다. 이때 젊은 주셀리누 쿠비체크의 범상치 않은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한 베네지투 발라다리스 주지사는 그를 벨로지존치 시장으로 전격 임명한다.

그때까지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주셀리누는 의사가 환자를 정성으로 치료하듯 시민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시정을 펼치면서 빠른 속도로 지지 세력을 얻게 된다. 최다 득표수로 당선된 연방하원의원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미나스제라이스 주지사로 선출되며 정치인 주셀리누 쿠비체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다. 주지사 임기 또한 성공적으로 마친 주셀리누는 여세를 몰아 처음 도전한 대선에서 제 21대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때 국민들로부터 얻은 애칭이 그의 이름 주셀리누 쿠비체크(Jucelino Kubitchek)의 이니셜을 딴 'JK'('조타카'로 발음)다.

의사가 되겠다는 유년 시절의 꿈을 실현했던 주셀리누는 시장, 연방하원의원, 주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차례로 실현시켰다. 이제 브라질 대통령으로서 JK는 더욱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대통령 JK의 꿈은 위대한 브라질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자면 뒤떨어져 있는 농업 중심의 국가 경제구조를 변혁시키고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발전소를 건설해야 했다. 열악한 국민 보건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상수도 설비를 대폭 확충하는 일도 필요했다.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는 JK의 꿈을 실현시키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50년 할 일을 단 5년 안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위대한 브라질을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초인적인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JK는 자신의 꿈이 헛된 몽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인적인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JK는 자신의 꿈이 헛된 몽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1개에 달하는 세부 목표를 시간계획에 따라 실행해 나아갔다.

JK 행정부가 새로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는 1만 8000 Km에 달한다. 푸르나스와 트레스마리아스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2기를 만들어 가동시켰다. 브라질 제조업 분야의 생산능력은 80%나 성장했다. 브라질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JK 임기 동안 무려 600%나 성장한 자동차 산업 덕분에 수많은 브라질 중산층 시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해 전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브라질리아 준공 기념식 당시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  
(자료: falando-historia.blogspot.kr)

위대한 브라질을 만들겠다는 JK의 꿈은 신수도 브라질리아 건설로 정점을 찍는다. 내륙 오지에 한 나라의 수도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JK가 자신의 꿈을 발표했을 때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냈다. 1960년 4월 21일



그림. 브라질은 1958년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우승한다. 축구황제 펠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료: ebc.com.br)

역사적인 브라질리아 준공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린다. 신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브라질 중서부 내륙의 중앙 고원 지대에 첫 삽을 뜬 지 불과 3년 7개월만의 일이었다. 이전 수도

였던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등 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개발은 신수도 브라질리아 건설과 함께 내륙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광활한 브라질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은 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브라질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냈다'는 자긍의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긍 의식과 자신감으로 한층 고조된 국민적 에너지는 당시 브라질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대중음악 보사노바가 태동했고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처음으로 높이 들어올린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브라질이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변혁은 주셀리누 쿠비체크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구상한 꿈과 그 꿈을 실현시키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리더십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브라질에 새로운 JK가 출현하기를 기대해본다.





### 7월 1일 멕시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까?

안태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2018년 7월 1일에 멕시코 대선이 열린다. 핵심적 관전 포인트는 18년째 도전 중인 온건 좌파 성향의 야당(Morena) 후보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빠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이다. 경쟁자는 PRI당의 후보인 호세 메아데(Jose Meade)와 PAN당의 리카르도 아냐야(Ricardo Anaya)이다. 그런데 오브라도르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오브라도르의 정치 구호는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멕시코 정치지형의 독특함 때문에 사실상 오브라도르와 이들

두 경쟁자 사이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88년의 대선에서 살리나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부터 PRI당과 PAN당은 은밀히 야합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정치학자들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PRIAN이란 말이 있다. 두 당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이다. 모두 알다시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는 발효된다. 그때부터 수 십 년이 흐른 오늘 멕시코 신자유주의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균열을 낼지도 모를 유력 후보가 오브라도르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오브라도르는 이번의 도전이 세 번째로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대선경쟁에서 패배했다. 그는 상당수 학자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멕시코 정치인들 중 가장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오랫동안 집권에 실패한 것도 멕시코 기득권 계급이 200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세게 불었던 좌파 진영의 부상이 멕시코에 상륙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같은 급진주의자는 아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특히 마약단과 조직범죄세력에 의한 폭력이 심각했다. 그로인해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멕시코의 지식인과 일반시민에게 온건한 좌파성향의 오브라도르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예전 2006년 대선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대중의 인식이 컸고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 등 시내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대규모의 평화적 대중시위를 주도했다. 과거 젊은 시절에도 오브라도르는 공적인 이슈가 있어 저항과 비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중과 함께 길거리 도보행진을 했던 적이 많다.

멕시코는 특히 대중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이 큰 보수적인 교회와 미디어가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는 소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변혁적인 정치세력의 출현이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예를 들어, 사실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가 가동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대통령들 살리나스, 세디요, 폭스, 칼데론과 니에토에 대해 정치

평론가인 페드로 에체베리아는 정상국가라면 멕시코 대중을 너무 가난하게 한 죄만으로도 이들이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위에 언급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만약 당선된다면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선거운동을 하는 오브라도르는 기업가등 기득권층에 대해 유화적인 언술을 내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라 호르나다지 보도(2018. 3.10 일자)에 따르면 오브라도르는 은행가 협회에 참가하여 약 50 여개 은행의 간부들 앞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면 취임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을 새로 개혁하고 부정부패사건을 사법부가 정확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며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재산 몰수도 없고 국유화도 없다고 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금융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기존의 우파 기득권 계급을 다른 세력으로 급격하게 몰갈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오브라도르는 이번에 선거 부정이 있으면 분노할 대중의 저항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치아파스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여론 조사에서 자신이 약 15 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중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오브라도르가 항상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면서 대중 스스로에 의한 공동체 조직의 다양한 풀뿌리 사회운동을 적극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인들이 공적 조직을 통한 선거기계 또는 미디어 정치에 의존하는 패턴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오브라도르를 견제하는 미디어와 기득권 계급은 오브라도르가 젊은 시절에 PRI당에 속했고 지나치게 대중 추수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헐뜯고 있다. 대부분의 우파 자유주의 정치인들처럼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해 친숙한 정치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오브라도르가 엘리트보다는 대중 지향적인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를

더 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의 PRI당은 1980년대 중반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치세력으로 변신한 PRI당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멕시코 혁명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따르려는 정치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런 점에서 오브라도르는 이념적 차이보다는 과거 멕시코의 친 민족주의-민중주의 전통을 되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멕시코의 좌파적 사회운동 세력은 오브라도르가 대선에 승리하면 기존의 대안적 사회운동이 활발한 오하아카 등 지역에서의 원주민 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외국계 기업의 광산 투자를 지나치게 옹호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태환경 파괴의 문제와 공동체 분열의 부작용을 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환경 파괴의 문제는 현재 토지의 사막화와 숲의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온건 좌파 정당인 PRD당의 대선 후보였던 오브라도르는 시간이 가면서 이 당의 정치적 투쟁력이

약해지고 신자유주의적 기득권층과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자 탈당하여 새로 만든 당이 Morena이다. 현재 정치 지형의 분석에 의하면 대통령인 페냐 니에토(Pena Nieto)의 정치적 성과가 아주 보잘 것 없어 집권당인 PRI당의 후보인 호세 메아데(Jose Meade)는 상식적으로 도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멕시코 정치지형의 독특한 성격 덕분에 다시 도전하는 것 같다.

문제가 많은 PRI가 아직도 정치적 입지를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멕시코 대중의 심층부 곳곳에서 오랫동안 싹틔출처럼 가동되는 선거기계 즉, 전통적 조직력을 말한다. 또 다른 야당의 후보는 2000년 이후 두 번에 걸쳐 집권한 보수 우파정당인 PAN당의 리카르도 아냐야(Ricardo Anaya)이다.

멕시코 혁명의 공식 혁명정신을 이데올로기로 삼고 1920년대에 출현한 PRI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 농민, 대중이 지지하는 정당이었다. 그리고 약 70년 이상 집권당이었다. 그러나 1968년 학생시위에 대한 무력 탄압이 일어난 이후 멕시코 지배세력의 우경화는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멕시코 국가 기구는 급진적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치밀한 사회통제 정책을 이끌어온다. 그러나 가끔 공권력이 개입한 사회적 폭력이 현실위로 부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있었던 아요치나파시의 멕시코 사범대 생 43명의 ‘강제실종’을 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멕시코는 마약단을 포함한 범죄조직에 의한 폭력에 포획된 사회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2017년 한 해에만도 약 4만 명이 폭력에 피살되고 약 3만 명이 실종되었고 언론인도 십 여명이상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브라도르는 과거 집권당이 마약단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자가 많아졌다고 보고 과잉 정치화를 지양할 생각이라고 한다.

오브라도르가 금융가들에게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금융권과 기업가등의 기득권 세력이 그를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자(socialdemocrata)로 즉,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타협하는 유럽의 사민주의와 정치적 노선의 결이 다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 이후 오브라도르의 현실 정치 노선은 더욱 현실화 또는 우경화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득권 계급에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오브라도르의 정치노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면서도 매우 실용주의적 자세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부 부르주아 세력도 현재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좌파를 대표하는 사파티스타 해방군이 오브라도르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음도 인식해야 한다.



## 멕시코의 두 얼굴,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에 선 나 - 사립대 장학생의 일기

**미겔 앙헬 아리스멘디 트루히요**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교 심리학과)

번역: 장혜영 (부산외대 스페인어과)

멕시코에서 사회적 계급 혹은 계층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두 갈래로 뚜렷하게 나뉘어 진다. 중산층도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 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중산층은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멕시코시티의 유명 사립대학교인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먼저 꺼내는지는 이 글의 말미쯤에 가면 다들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어찌면 몇 단락 지나지

않아 나의 혼란된 상황을 곧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진1: 줄여서 ‘이베로’라고 부르는 멕시코시티의 사립 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나 (Universidad Iberoamericana)

## 예수회가 설립한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교와 장학 제도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Universidad Iberoamericana)는 예수회가 1943년에 세운 가톨릭 계통 사립

## 미겔 앙헬 아리스멘디 트루히요 □

학교로 멕시코시티 외곽의 신흥 상업 지구인 산타 페 지역에 있다. 그리고 띠후아나와 뿌에블라, 레온 등 지방 캠퍼스도 존재한다. 멕시코시티 본교의 경우 부속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이 비싼 걸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립대이기도 하다. 그만큼 학교의 시설과 서비스도 좋고, ‘명문’이라 불릴만한 명성도 갖추었으니 아마도 이 비싼 학교에 캠퍼스가 미어 터질 정도로 학생이 많은 것이 아닐까 싶긴 하다, 다들 점심을 먹는 오후 2시~4시 사이엔 교내 식당에 자리를 잡기가 힘들 정도니까.



사진2: 교내 식당 까르빠(K-rpa). 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수업료는 시간당 수업료가 책정되어 듣는 수업시간 만큼 곱해져 올라가는 식이지만 8시간 이상 수업을 들을 경우 시간당 수업료가 조금씩 감해지는 식이다. 학사 과정의 경우 2018년 봄학기 기준으로 8시간에 46,925 페소를 낸다. 달러로 계산하면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한 최근의 기준으로도 2600 달러 정도이다. 그런데 보통 한 학기당 24~30시간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만큼 곱해지는 총 수업료는 멕시코 서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준이 된다. 게다가 외국어 과목 수업료는 따로 내야하고 과정을 마친 후 학위증을 받는 과정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이베로’ 하면 엘리트층 자제들이나 올 수 있는 귀족학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교육을 중시하는 예수회의 정신에 따라 학습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사정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80%에서 100%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내국인들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장학금을 줄 때는 학생의 실력,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꼭 장학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한다. 그리고 나, 베라크루스 주의 농촌 출신에 가진 것 없는 내가 여기 이 부유한 세계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장학생 심사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사진 3: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는 시내 유명 병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진행되는 수준 높은 실습 수업도 제공한다.

나는 원래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생의 길을 걷다 심리 치료사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밝히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명을 포기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기회를 잡기 위해 여러 대학에 서류를 내고 장학생 선발 시험을 쳤다. 그러다 운 좋게도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의 100% 장학금, 즉 무료 공부 승낙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이 학교는 먼저 내 고향으로부터 너무나 먼 곳에 있었다. 그리고 등록금이 면제된다 한들 멕시코시티에서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게다가 학교가 위치한 산타 페 지구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사는 부자 동네라 월세도 어마어마하다. 대학 기숙사는 없다. 하지만 이 좋은



사진4: 이베로 공동체 (학생-교수-직원-졸업생) 일원들 모두가 사용 가능한 헬스장



기회를 포기할 순 없어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 산타 페 지구에 그럭저럭 가까운 우익스킬루간에 월셋방을 구해 드디어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그 첫 느낌은, 여기는 내가 몰랐던 ‘또다른 멕시코로구나’ 하는 거였다.

###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나는 캠퍼스 생활

학교는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온 나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했다. 학교 안에 온갖 편의시설이 있었고, 수많은 미화 담당 직원들이 학교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차를 끌고 유유히 학교에 도착했다. 첫 수업을 들어갈 때의 그 두려움은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집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났다. 다른 학생들과의 경제적인 차이도 있지만, 멕시코시티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도 큰 두려움을 주었다. 베라크루스 주와 멕시코시티는 말투도 다를 뿐 아니라 단어를 아예 다르게 쓰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의 동료들도, 멕시코시티의 이웃들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의 두려움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느새 사라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이베로’는 나의 학교가 되었다.

학교의 수업은 아침 7시에 첫 수업이 시작돼 밤 10시에 마지막 수업이 끝난다. 아침 7시 수업을 들으려면 겨울의 경우 입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추울 때에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수업 시간은 조절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의 경우 아침 7시든 밤 마지막 수업이든 들어야 하고 당연히 공장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면 학교가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사진5: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수강 가능한 음악 교실과 음악 전용 강의실

일단 헬스장과 샤워실이 있어 세수도 못하고 첫 수업을 들으러 뛰어온 학생들은 거기서 눈곱을 떼도 된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학교 식당에서 아침 7시부터 제공하는 아침을 먹으면 되는데 식당은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야 한다. 학교 수준에 맞춰 식당 음식값은 좀 비싼 편이다. 그리고 각종 문화 교실과 스포츠 교실도 무료로 제공된다.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직원, 교직원, 졸업생에게까지 다 무료로 제공한다.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 정식 수업 다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 나는 심리학 외에 음악에 대한 열정도 크기 때문에 문화 센터의 음악 앙상블 교실과 기타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 여기서 다른 과의 학생들이나 학교 직원들과도 교류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바뀌지 않은 현실과 바꾸고 싶은 현실

그렇게 1년 반의 세월이 흐르고 네 번째 학기에 접어든 나는 이제 이 부유한 세계의 일원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한쪽 발은 여전히 가난함의 세계를 밟고 있다. 아니 가난함과 싸우고 있다. 가면 갈수록 생활비 부담이 늘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장학생은 휴학을 할 수도 없다. 무조건 4년 8학기 수업을 연달아 이수해야 한다. 학점도 평균 8.8이상(10점이 A+)을 유지해야 한다. 이 부유한 학교에 들어앉아서 저녁끼니를 이을 수 있을지 빈 지갑을 뒤지며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뻗었으니, 학교 안의 신경 심리학 실험실과 신경학 연구 프로젝트의 일을 연계된 것이다. 덕분에 근근이버티게는 되었지만 부유함과 가난함의 경계에서



사진6: 늘 그리운 나의 고향의 소도시 라스 비가스 데 라미레스 (Las Vigas de Ramírez).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멕시코시티의 산타 페 지구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멕시코의 또 다른 부분이다.

줄타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먼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와는 출신이  
다른 부유한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예전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그들에 대한 불만 어린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부유하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부를 누리며 그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한편으로 내 고향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적은 임금을 받아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교육의 기회였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기 못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부유한 세계와 가난의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세계의 경계는 더더욱 공고해 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운 좋게 교육의 기회를 얻었고, 두 세계를 모두 체험하면서 증오 보다는 대안을 찾는 게 옳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심리학자가 되면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나의 고향 베라크루스 주의 산악 지대에 사는 가난한 원주민들의 공동체를 돕고 싶다는 꿈도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경계 사이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발자취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봄기운이 완연한 4월, 가톨릭대학교를 찾아 나섰다. 진보적 사회학자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연구하시며 소통하시는 조돈문 교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뵈는 조교수님의 첫 인상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포근함과 정겨움이 묻어났지만, 대화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교수님의 삶의 궤적 가운데 ‘투사’의 삶이 투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해야 한다”는 학문적 자세에 대한 말씀, 긴 여운으로 남는다. 인터뷰 시간은 모두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1. 교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아우르며 묘사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선정하신 이유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순화적인 표현으로는 ‘집념’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실은 제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면 집착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일을

시작하면 끝내기까지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제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융통성 없고 지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구자로서 자신의 주제에 타협하지 않고 ‘집착’을 하는 것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그리고 석사와 박사는 사회학을 연구하셨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하시고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학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경영학과는 사실 제가 원해서 전공한 학문은 아니었어요. 전공공부를 하면서 경영학 자체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은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법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유신 쿠데타 발생 이후, 기존의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되고 있었지만, 헌법학자라는 자들 가운데 누구하나 그 유신헌법에 대해 항거하는 이가 없었어요. 실제, 유신헌법을 만든 자들이 바로 헌법학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에 신뢰를 줄 수 없었고, 그런 헌법 학자들에게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승려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당장 출가할 수도 없었고, 불교학과로 진학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었구요.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경영학과였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가서 법 공부를 하여 사법고시를 보겠다는 식으로 아버님을 설득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대학 진학 후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때 사회학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개론을 보고 흥미를 느껴 지금의 종로에 위치한 범문사에 있는 외국 수입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회를 보고 분석하는 관점이 사회학에 나오는 이론들(유물론, 변증법 등)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3.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 학위과정을 하셨는데요. 위스콘신 대학으로 유학가신 이유, 그리고 혹 미국에서 생활이나 학위 과정 중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학위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극복하셨는지요.

사실은 제가 말씀 드린 바대로, 학부 전공인 경영학에

관심이 없어 학부시절 성적이 평점 3.0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대학원에 지원서를 냈구요. 그 당시는 미국 대학원에 원서를 요청해서 받아야 했었는데, 제 학부 성적이 형편없어 지원서 양식 자체도 받지 못해 제대로 미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시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학원 진학하게 되었어요. 미국 대학원에 가려면 GRE와 TOEFL점수가 있어야 했는데 친구한테 책을 빌려 일주일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던 기억도 있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위스콘신 사회학은 학문적으로 전 세계 사회학을 리드하는 대학으로,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구요. 나중에야 한참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학부 점수가 너무 낮아 불합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 교수들 가운데 한 분이 저의 연구 계획서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저를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덕분에 제가 위스콘신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느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가 제일 힘든 부분이었요. 위스콘신 대학의 규정상 첫 1년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구요. 당시 저는 1년 치 학비만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은, 상대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신청해,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지, 아니면 어려워도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비장학생으로 온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학수혜 혜택에서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 사실 미국으로 오는 국비장학생들 대부분 상대적으로 점수받기 쉬운 과목을 신청해서 학점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1년 뒷면 돈 떨어져 귀향할 수도 있는 처지라서, 돌아가더라도 후회 없게 최고의 과목들에도 도전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런 과목들은 학점따기 어려운 소문난 과목들이었지요. 감사하게도, 제가 신청한 과목 모두 좋은 점수를 받게 됨에, 연구보조원 (R.A.)과 강의보조원 (T.A)의 기회를 잡게 되며,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스콘신대에서 ‘쫓겨나지’

않고 학업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는데요. 유럽에 관한 역사는 많이 배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관심을 돌렸어요. 그때 예일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었는데, 이들이 당시 신사회사 혹은 신노동사로 불리던 신진 좌파 역사학자연구자들이었고, 위스콘신대 역사학과에도 이 그룹의 쟁쟁한 교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 중 한사람이 저의 부전공 지도교수였고요.

제가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전공하던 시절에는 칠레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운동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중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칠레 솔리데리티라는 민주화 운동 단체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의 부전공 지도교수도 중남미 관련 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낮에는 세미나에서 교수로 만나고, 저녁에는 운동권단체들에서

동료로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다른 제3세계 관련 운동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제3세계동맹(Third World Coalition)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어 실천적 활동도 하고, 집회도 조직하는 활동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선거 등에 감시단을 보내며 선거가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지를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4. 조돈문 교수님 하면, 노동운동, 비정규직, 사회양극화 등의 단어들 연상이 되는 데요. 교수님이 이와 같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또는 계기가 있다면,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아마도, 저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제가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해요. 잘못된 지배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정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들과 싸워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있었구요. 특히 고등학교 재학시절

예비고사시험(현재의 수능과 유사함) 제도 관련해서 데모를 주동해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집안이 좋고 소위 모범생인 학생들 보다는 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거나 약간 불량끼가 있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었어요. 저나 주변 친구들은 소위 가정형편 좋은 ‘범생이’와는 거리가 멀었었구, 큰 사고는 치지 않는 ‘문제아’ 정도의 경계인들이 많았었던 거지요. 실은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닌 강릉이라는 도시는 그닥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해서, 저는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늘 들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많은 친구들의 가계보와 라이프 히스토리를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 가운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대학진학도 어려웠고, 군대를 제대하고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등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한번 사고로 망하고 나면 다시 재기하지를 못하더라구요. 그에 반해, 집안 형편이 넉넉한 친구들은 대학시험에

낙방해도 재수 등으로 다시 도전하고, 어찌어찌해서 대학 졸업장도 따고, 졸업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몇 차례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더라구요. 이런 주변친구들의 상황을 목도하며, 돈과 권력이 없는 것은 학업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일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한번 타고난 계급은 다른 방식으로 또 물려받은 계급이 그대로 재생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많은 일들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평등과 계급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계급론적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5.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더불어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북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비교사회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이와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인연은 멕시코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이지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멕시코에 가보면 빈부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빈민들의 삶의 질 또한 한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사회제도가 리셋되는 혁명을 겪은 바 있는 멕시코가 왜 1980, 1990년대 혁명의 기운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부당한 사회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사는 걸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을 연구하며, 남미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03년 1월 초에 브라질로 가게 되었는데요. 실은 룰라가 정부가 브라질에 들어설 것 같아, 미리 포르투갈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 경 포르투 알레그리 (Porto Alegre)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고자 갔어요. 그 때 저는 민주노총 대표단 중 한명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한국과 구조적 조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유럽의 포드주의 같은 계급타협이 없었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제도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래서 군사독재에서 살게 되었고, 사회 불평등, 독재, 계급지배 방식이 너무나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사회과학이란,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리와 비슷한 구조적 조건을 지닌 나라가 중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GDP 수준만 따져놓고 본다면, 외양은 구미의 OECD회원국들과 비슷할 지라도 구조적 조건은 중남미라 본 것입니다. 어떻게 좌파가 계속 재집권하고, 어떻게 룰라가 재집권하게 되었을까 또한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은 어떤 변혁을 갖는가 등등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중남미 전체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을 보고 연구하는 이유는, 유럽연합 국가들, 특히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본주의

외양을 갖추면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구가하는 나라들이 아닌가해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 중 스웨덴을 비교하게 된 이유는 스웨덴 자체는 인간이 주거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하고 열악한 조건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공존 공생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러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기반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유럽쪽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시장경제모델에서 스웨덴의 대척점에 위치한 지중해형 조정 시장 경제 모델 국가 스페인을 연구하며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유럽연합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인데요, 유럽연합의 그런 실험적 노력들을 검토하고, 스웨덴과 스페인을 비교분석하며 한국사회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질문과 연동해서요. 비교사회 연구를 통해 교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웨덴 등 유럽을 연구하고, 남미 사회와 비교하며, 인간이 만든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사회변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변화를 가능하게 한 동력은 무엇인가?, 이러한 동력이 변화를 만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남미와 우리가 구조적 조건이 비슷하니까 서로 바라보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모델을

참조하며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변화란 단변에 이를 수 없는 점진적 변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스웨덴은 이러한 맥락적(contextual)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7. 교수님께서서는 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연구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인식의 확장 혹은 영감을 준, 아울러 학문적 지경을 확장하게끔한 선진 학자와 그분들의 저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으로 했지만 부전공을 역사학으로 했고 그 외 경제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을 두루두루 많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위스컨신대에 유학하던 첫 번째 방학기간에 도서관에서 계급과 관련한 논문들을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펼쳐보았는데 그 중 가장 감명 깊은 논문은 아담 쉘보르스키 (Adam Przeworski)와 마이클 뷰라보이 (Michael Burawoy)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쉘보르스키는 사회민주주의(So-

cial Democracy), 뷰라보이는 동의의 형성(Manufacturing consent), 그리고 제 지도교수였던 에릭 올린 라이트는 Real Utopias 라는 시리즈를 냈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고 이 사회에서 어떠한 대안 사회가 가능 한가 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이 정도 저서들을 추천해봅니다.

8.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여러 연구물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논문 또는 저서가 있으시다면 2-3 편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를 여쭙 보고 싶습니다.

멕시코 혁명과 한국 전쟁 시기를 비교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멕시코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농민혁명 세력과의 연대를 거부하며, 왜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보수적인 선택을 했을까...한국은 해방이후 혁명적 계급형성이 진전되었는데 왜 멕시코는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논문작성 했습니다. 지난 2003년 포르투 알레그리 세계사회 포럼에 2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좌파계열의 운동권이었습니다. 실은 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에 따른 그 충격으로 사회주의 대안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 가운데 브라질에서 다시 좌파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 실험의 장으로서 브라질을 관찰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룰라정부의 실험을 제가 기대했던 변혁적 실험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왜 룰라정부는 사회변혁을 실시하지 못했을까를 분석하여 책으로 펴냈고, 이후 베네수엘라의 실험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해서 결과물들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9. 교수님이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만남, 연구논문을 통해 학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 등 참으로 역동적인 삶을 사셨는데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동계급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과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사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은 노동계급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해야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많은 스트레스도 주고 좌절감도 많이 안겨주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제 삶을 치열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10. 조돈문 교수님이 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을 2회 역임하셨는데요. 편집위원장으로 바라본 한국라틴아메리카 학계에 대한 소감 또는 소회를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또는 라틴아메리카학은 교수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자신의 학문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각을 주고 관점을 만들며 그리고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가 자기만의 분석틀을 가지고 관점을 활용해 무언가 다른 부가가치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학회



편집위원장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2002년~2004년의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연구 책임자로 결합하여 20명 안팎의 다른 라틴아메리카 학회 교수·연구자분들과 함께 했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여러 분과 학문의 학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2년의 연구기간 동안의 제 역할로 라틴아메리카학회에 대한 제 몫은 웬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11.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즉, 다음 세대 (후속세대)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연구소에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단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연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연구자는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되고 또한 중요하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연구자라면 이미 연구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질문은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갖추고 남이 던져 준 질문이 아닌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연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것에만 그치지 말고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멕시코 문화를 비추는 거울의 도시, 멕시코시티의 역사 지구 (Centro Histórico)

후안 라몬 이슬라스 우에스카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교)

번역: 장혜영 (부산외대 스페인어과)

멕시코 합중국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는 행정상으로는 ‘파우떼목’구(Delegación Cuauhtémoc)의 ‘중심’동(colonia Centro)에 해당한다. ‘파우떼목’이란 이름은 아스테카 제국의 마지막 황족이었던 영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멕시코시티는 스페인 군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인 ‘테노츠티플란’이었기 때문에 옛 제국과 식민 시대, 그리고 독립한 멕시코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곳이다. 그리고 텍스꼬꼬 호수 위에 지어진 도시이기도 한 멕시코시티의 중심부가 이곳 역사 지구이다.



사진1: 멕시코시티 역사지구의 핵심 소칼로(Zócalo) 광장

떼노츠띠플란이 건설된 14세기초부터 거의 700년간, 기나긴 역사의 시간 동안 바로 여기서 아스테카 제국이 건설되었다가 멸망했고, 그렇게 스페인 군이 입성했고, 또 이후 멕시코 독립군들이 들어왔으며, 멕시코-미국 전쟁 때는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러 군을 끌고 들어왔고, 자유주의자였던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이

## 후안 라몬 이슬라스 우에스카 □

서거했으며 또 멕시코 혁명 때는 술한 사람들이 피를 뿌렸던 곳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멕시코국립 자치 대학(UNAM)의 모태가 된 산 일데폰소 학교와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이자 미술관인 빨라시오 데 베야스 아르떼스(Palacio de Bellas Artes, 이하 베야스 아르떼스), 그리고 스무개가 넘는 미술관 등 문화적으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곳이다.



사진2: 베니또 후아레스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반원 아치(Hemiciclo a Juárez), 알라메다 센트랄 공원에 있다.

## 홍망성쇠 역사의 증인인 대성당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역사지구는 중심지라 많은 교통 수단이 있지만 가장 편리한 것은 지하철이다. 역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치안상으로도 안전하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좀 낯고 번잡한 기분이 드는 지하철이 부담스러우면 비교적 깨끗한 메트로버스(Metrobus)를 이용해도 된다. 오렌지색으로 표기되는 4호선 버스가 멕시코시티 국제 공항에서 출발해 역사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곳곳에 정차한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칠랑고(Chilango: 수도권 사람들을 일컫는 말)’라 가장 친근하고 싼 지하철을 이용해 이곳에 도착하곤 한다. 2호선의 소칼로(Zócalo, 중앙 광장) 역에서 내리면 웅장하게 넓은 광장의 한편에 대성당(Catedral Metropolitana)이 자리잡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스페인이 의도적으로 아스테카의 유적 위에다 터를 잡아 1571년부터 지어져 1813년에야 건설이 끝났다. 그래서

이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건축 양식들이 혼재해 있다.



사진3: 소칼로 광장의 가장자리에 있는 대성당의 정문

고딕양식, 바로크 양식, 신고전주의 양식 등등, 스페인의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의 양식들이 주가 되지만 그 속에서 또한 원주민 석공들의 독특한 표현들도 살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섯살 즈음에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대성당 문턱을 넘었는데,

어린 내 눈에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과 성당 내부의 곳곳에서 번쩍번쩍 빛을 내는 황금 장식들, 엄청나게 굵은 돌기둥들 등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들로, 이백년 전 18세기에 만들어진 두 개의 오르간이 6000개가 넘는 금속관을 거느린 채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4: 대성당의 명물이자 역사적 유물과도 같은 파이프 오르간



## 이투르비데의 오래된 궁전 혹은 시티바나멕스 문화회관

대성당에서 나오면, 본격적으로 역사 지구 산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중심이 되는 길은 마데로 거리로 소칼로에서 베야스 아르데스까지 쪽 뻗어 있다. 네 블록 반 정도 가서 그 17번가에 도착하면 지금은 ‘시티바나멕스 문화 회관’으로 이름을 바꾼 ‘이투르비데의 오래된 궁전 (Palacio antiguo de Iturbide)’에 들어가볼 수 있다.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 (1783-1824)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가 퇴위되었던 인물로 그의 거처였던 건물인데 사실은 18세기 후반에 건축이 시작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 최후의 책임자 후안 오도노후의 거처로도 사용되다가 이후 이투르비데의 거처가 되었다. 그 후로는 호텔로도 쓰이다 멕시코 최대 은행인 바나멕스가 문화 센터로 바꾼 뒤 2004년부터는 바나멕스 문화 회관으로 이름도 바꾸었다. 2016년에 ‘바나멕스’가 최대 주주 회사인 미국 시티은행의 이름을 넣어 ‘시티바나멕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문화 회관의

이름도 다시 시티바나멕스 문화 회관이 되었다. 물론 우리는 이 멋없는 새 이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진5: 시티바나멕스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바꾼 이푸르비테의 옛 궁전 입구

이곳은 아름다운 바로크 건물과 함께 멕시코 현대 미술의 중요한 전시회들이 열리기에 역사 지구에 왔을 때 반드시 들러야 한다. 멕시코는 미술의 나라로, 디에고 리베라,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 호세

## 후안 라몬 이슬라스 우에스카 □

클레멘테 오로스코 등 유명 벽화가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뛰어난 화가들이 많은데, 그 중 한 명이 풍경 화가인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1840-1912)이다. 그의 그림을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는데, 이곳에서 전시회가 열려 그의 귀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벨라스코는 멕시코의 문명이 탄생한 ‘바예 데 멕시코(Valle de México, 멕시코의 계곡이란 뜻)’를 주로 그렸다. 그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사진6: 벨라스코의 그림 “산타 이사벨 언덕에서 본 바예 데 멕시코 풍경” (1875). 동그라미 쳐진 곳이 오늘날 역사지구이다.

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에 데 멕시코의 19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의 변화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

역사 지구의 거리들을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유 없이 들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물론 주말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지만 평일 오전에 이곳에 도착하면 신선한 아침 공기와 더불어 우리네 역사의 오래된 향기를 맡으며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기분 좋은 느낌을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아마도 멕시코인으로서 자긍심을 이 거리에 오면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더운 날이면 조금 피곤하고 목이 말라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여기 레스토랑들은 비싼 편인데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게의 진열대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데로 거리에서 갈라지는 시몬 볼리바르 거리에 가면 큰 악기점들이 즐비해 내가 좋아하는 전자 기타들을 쳐다보고 골라볼 수 있다. 물론 살 돈은 없지만 마음 속으로만 골라봐도 언젠간 저걸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진7: 볼리바르 거리는 악기 상점 거리로 유명해 기타를 고르거나 쳐 볼 수 있다.

## 또레 라티노아메리카나

(Torre latinoamericana, 라틴아메리칸 타워)

시티바나멕스 문화회관을 나와 한 블럭 정도, 라사로 카르데나스 중앙로와 접해 있는 것이 44층, 204미터(꼭대기의 안테나 포함)의 높이를 자랑하는 또레

라티노아메리카나이다. 1956년에 완공돼 1957년, 85년, 그리고 작년 2017년 9월의 대지진까지 겪었음에도 끄떡없는 내진 설계로도 유명하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에는 멕시코시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물론 전망대는 유료로, 110 페소를 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한번도 전망대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사실 나로서는 굳이 돈을 내고 ‘전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역사 지구 전체는 물론 날씨 좋은 날에는 저멀리 화산들까지 넣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 베야스 아르떼스, 빛나는 하얀 예술 궁전

또래 라티노아메리카나를 거친 뒤 대각선 방향으로 라사로 카르데나스 중앙로를 건너면 후아레스 대로와의 교차 지점에 아름다운 복합 공연장이자 전시장인 베야스 아르떼스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16세기말에 지어진 유서 깊은 알라메다 센트랄 공원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파란색으로

## 후안 라몬 이슬라스 우에스카 □

표기된 지하철 2호선의 베야스 아르떼스 역에 내리면 바로 도착할 수 있다. 멕시코 예술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연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베야스 아르떼스는 멕시코 혁명을 유발시킨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 때인 1904년에 건축이 시작돼 혁명의 소용돌이를 거쳐 점차 혁명이 정리되어 가던 1934년에 완공되었다. 그래서 19세기말-20세기 초의 아르누보와 1920~30년대 아르데코 양식이 하얀 대리석 건물



사진8: 팔라시오 데 베야스 아르떼스 (Palacio de Bellas Artes) 정면의 비너스상

곳곳에 아름답게 반영되어 있다. 황금빛 돔 지붕 아래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작은 비너스상은 ‘이탈리아의 조각가 레오나르도 비스톨피가 ‘하모니, 음악 그리고 영감’이라는 주제로 조각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시께이로스가 그의 부인을 모델로 해서 그린 ‘새로운 민주주의’를 비롯, 멕시코 벽화 운동의 주요 작품들이 우리를 반긴다. 시께이로스와 리베라의 벽화 작품 외에 루피노 타마요의 개성 넘치는 그림들도 볼 수 있다. 유럽적인 건물의 양식과, 그 안을 장식하는 멕시코 미술사의 걸작들... 서양 예술 사조와 멕시코 문화가 합쳐지는 공간이 베야스 아르페스가 아닌가 싶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멕시코 민속 발레단의 공연 장소로도 유명한데 꼭 클래식한 공연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작년에는 우리 전통의 ‘죽은 자들의 날’ 풍습을 소재로 한 디즈니-픽사 영화 ‘코코(Coco)’의 시사회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를 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음악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멋진 기회가 될 거 같아 가보고 싶었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긴 했지만 말이다.



사진9: 황금빛 돔과 하얀 대리석의 조화가 아름다운 팔라시오 데 베야스 아르떼스

## 2017년 9월의 지진에 상처 입은 역사 지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2018년 7월의 선거

나의 사랑하는 베야스 아르떼스에 도착한 이후 잠시 작년 2017년의 가을, 큰 지진이 났던 9월 19일을 떠올려 보았다. 역사 지구는 건물들도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호수 위에 지은 도시 셈이라 지반도 약한 편이다. 하지만 나는 지반이 잘 다져져 있는 편인 멕시코시티 외곽 산타 페 지구의 대학교 마당에 있었기에 큰 피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먼저 땅바닥이 솟아 오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곧 땅과, 건물과, 나무들이 무시무시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5년 같은 날짜에 있었던 대지진 때보다 진원지가 더 가까웠던 그 지진에 역사 지구의 많은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대성당에도 금이 갔고 역사 지구와 가까운 로마 지구에는 건물 전체가 폭삭 내려앉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

대성당이나 이푸르비데의 궁전 같은 오래된 건물들과 또레 라티노아메리카나 같은 새롭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역사 지구이다. 지진은 그 콘트라스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듯 역사 지구를 할퀴고 지나가 오래된 건물들은 신음해야 했고 또레 라티노아메리카나(사진)는 또 한번의 강진에도 굳건하게 살아 남았다.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 때 우리는 모두 자원 봉사대를 만들어 바쁘게 움직였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뭔가 빠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의 선입관을 깨주길 바랬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었고 올해 2018년 7월의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저 최악의 선택만 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 자원이 무성하게 우거진

정글과도 같은 나의 조국 멕시코, 그리고 그 멕시코 문화의 소우주와도 같은 역사 지구를 거닐 때 느끼곤 하는 자부심을 올해의 선거 이후에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의 끈 한 가닥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국가별 연구동향(2018.01-03)

Instituto de Estudos Avancados da  
Universidade de Sao Paulo  
(상파울루대학교 고등교육 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iea.usp.br/>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일시: 2018년 3월 12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Seminário destaca importância das experiências inovadoras em educação básica(기초교육에서 혁신적인 경험들의 중요성을 밝히는 세미나)

일시: 2018년 3월 16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O Seminário discute integração da União Europeia(EU통합에 대한 토론 세미나)



일시: 2018년 3월 22~ 23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Seminário discute rotas tecnológicas da biotecnologia(생명공학의 기술에 관한 토론 세미나)

일시: 2018년 4월 24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Seminário discute as características do Antropoceno (인류세의 특징들에 대한 토론 세미나)

The Latin American Centre University of Oxford,

St Antony's College

(옥스퍼드 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센터)

웹사이트: <http://www.lac.ox.ac.uk/>

일시 : 2018년 1월 18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Conflictopolítico y Constitución. La crisis de la primera república de Colombia, 1826-1832” (정치적 분쟁과 구조. 콜롬비아 공화국의 첫 번째 위기, 1826-1832.)

일시 : 2018년 1월 19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Colombia's Road to Peace.” (콜롬비아의 평화로 가는 길)

일시 : 2018년 2월 2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State-Driven Activism: The Politics of AIDS in Brazil” (국가 주도의 움직임 : 브라질에서의 에이즈 정책)

일시 : 2018년 2월 23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Roundtable Discussion on "Whither Brazil?  
Scenarios for 2018 and Beyond" (2018년 이후의  
브라질 시나리오“에 관한 원탁토론)

일시 : 2018년 3월 2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newable  
Energy: Paraguay and the Itaipu Treaty(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국제 정치 : 파라과이와 이타이푸 조약)

일시 : 2018년 3월 9일 / 행사종류 : 세미나  
주제 : Demystifying Democracy in Latin America and  
Beyond.(라틴 아메리카와 그 이후 민주주의 신비화)

Teresa Lozano Long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라틴아메리카 연구센터)  
웹사이트 : <http://liberalarts.utexas.edu/llilas/>



일시: 2018년 1월 23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 Venezuela : The Collapse of Bolivarian So-  
cialism? " (베네수엘라 : 볼리바르 사회주의 의 붕괴)

일시: 2018년 2월 5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 Hábitos culturais no Rio e em São Paulo ”  
(Rio와 São Paulo의 문화적 습관)

일시: 2018년 2월 21일 ~ 23 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 "Create, Consume, Collect: The Lives of Co-  
lonial Latin American Artifacts" (창조, 소비, 수집 :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유물의 삶)

일시: 2018년 3월 2일 / 행사종류: 워크숍  
주제 : "Deciphering Spanish Colonialism Collective-  
ly."(스페인 식민지주의 해독)

**알갈라 대학교(UAH)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웹사이트: [www.ielat.es](http://www.ielat.es)

일시: 2018년 2월 27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del Grupo de Investigación -  
“DERECHO Y EMPRESA” (연구그룹세미나 -  
“법률과 기업”)

일시: 2018년 3월 1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y  
parlamentarias chilenas de 2017 en perspectiva  
histórica: el sistema de partidos y el fin de la tran-  
sición” (세미나 : “역사적 관점에서 2017년의 칠레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 정당체제와 과도기의 끝”)

일시: 2018년 3월 21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주제: Seminario del Grupo de Investigación DERE-  
CHO Y EMPRESA - "Aspectos jurídico-administra-  
tivos, laborales y fiscales del transporte colaborativo:  
Uber, Cabify y Blablacar a debate" (법률과 기업  
연구그룹세미나 - “협력하는 운송의 법률적, 행정적,  
노동적 및 세금적인 측면: 우버, 카비파이,  
블라블라카와 토론”)

## 간추린소식 (01-03월)

### 1. 중남미지역원 상반기 워크숍 개최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남미지역원교수, 행정직원, 연구보조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한국(H-K)지원사업 3단계 4년차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HK+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 2. 중남미지역원

### 라틴아메리카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공모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원의 HK 연구인력 중 5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개최되는 국제적인 라틴아메리카 학술대회에 논문발표를 위해 참가하는 자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중남미 지역원 메일 (ibero@bufs.ac.kr) 또는 우편을 통해 받는다. 선정된 연구인력에게는 왕복항공료 및 3박 4일 체제비를 지원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행정실(☎051-509-6634, 6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 3. 제 50회 초청강연회 개최



중남미지역원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3월 27일 부산외대 글로벌센터(A동) 410호에서 제50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쿠바 아메리카의 집(Casa de las América) 호르헤 포멧 교수와 문학과 언어 학회(Instituto de Literatura y Lingüística)의 카포테 교수를 초청하여 ‘쿠바와의 대화: 쿠바 어제,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 되었다. 강연회 참석자들은 쿠바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이태혁 HK 연구교수는 “최근 쿠바가 겪고 있는 사회적·정치적인 변화를 전문가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쿠바의 변화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4. 3월 월례세미나 개최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3월 29일 부산외대 글로벌센터 (A동) 410호에서 3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세미나에서는 중남미지역원 교수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적 함의와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의견들이 전개되었다.

#### 5. 중남미지역원 연구보조원 프로그램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지난 3월 30일 중남미지역원 도서관에서 차세대 중남미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클리 리포트(Weekly report)를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중남미 지역에 특화된 후속세대 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후에 연구보조원들의 대학원 진학 및 국제기구 진출확대를 위해 계획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재 소속된 연구보조원들은 매주 중남미 관련 영문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각자가 관심 있는 해당 국가 지역 사정에 대해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그 국가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남미지역원 홈페이지(LAKI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6.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고대 아메리카’를 주제로 무료 시민강좌 개최

부산외국어대 중남미지역원은 20일부터 5월4일까지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무료 시민강좌를 열 예정이다. 4월 20일,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혜주 고고학자가 '마야인은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아즈텍 제국의 꽃의 전쟁과 희생제의'를 주제로 4월 25일 이종득 덕성여대 교수가 그리고 5월 4일 김황옥 여행가의 '잉카 유적을 찾아서(안데스 자전거 여행)' 강연이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이어진다.

## 7. 중남미 지역원 기타 행사일정

4월 27일 제 36차 콜로키엄이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에서 “자원 붐 이후 중남미 경제의 발전과제와 전망”를 주제로 개최 될 예정이다. 이후 5월 10일 (예정) 라틴아메리카와의 대화 (니카라과 대사), 11일에는



‘정치학과 라틴아메리카’를 주제로 콜로키엄 역시 개최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에는 학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